

6월

“정보문화의 달” 회고



IPAK/자문위원 南石 박종현

필자는 4·19혁명 후 1960년도 국토건설추진요원으로 선발되어 체신에 입사하고 우리나라에 전산업무가 도입된 후 60년대 후반기부터 97년 한국통신공사에서 공직생활을 마칠 때까지 거의 35년간 계속해서 컴퓨터관련 업무에만 종사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196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까 초창기부터 전산업무에 종사한 결과가 되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전산교육을 받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가정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으니 누구나 컴퓨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지만 초창기 컴퓨터 업무는 새로운 학문분야이고 또 우리의 문화와는 서로 다른 서구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맞지 않은 분야가 많아 이해하기가 꽤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나는 제일 먼저 “전화요금업무”를 전산화하기로 결정하고 컴퓨터가 있는 한국기술연구소(KIST)에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쉬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

다.

오늘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쉽고 결과도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라 해도 전산으로 처리하기에는 모두가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처음 계획수립부터 요원확보, 프로그램작성, 업무전환, 직원선택(홍보) 등 컴퓨터에 관한 전반업무가 모두 전산 전문가들의 일로 분담되어 참으로 난감하였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었다.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Fortran, Cobol, 그리고 Basic 등 전산언어도 다르니 모르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컴퓨터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할 수 없이 시간을 내어 공무원, 군인, 대학교,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컴퓨터 기능부터 역할까지 정신 없이 설명하며 강의하러 돌아다녔고, 전화요금업무를 전산화하려면 제도부터 전반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전산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면, 전화요금업무 전산화하는데 매일 15만건씩 발생하는 시외통화요금 자료를 입력방법을 카드천공(키펀치:Key-punch)방식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수작업으로 할때 보다 일은 더 어렵고 경제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최초로 개발된 광학문자처리(OCR:Optical charecter)방식으로 하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OCR로 하려면 용지, 인쇄, 컷팅, 잉크, 2B연필 등 우리

나라에는 조건이 전부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지 자체를 일본에서 인쇄하여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지회사, 연필 제조회사, 잉크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OCR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바 있다. 오늘날 각종 고지서의 대부분이 OCR로 수압하고, 대학교 시험지가 OCR 또는 OMR로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산화로 인하여 성력화를 한 것은 당시 서울시내 23만 전화가입자 요금계산에 투입된 요원 600명을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고 각종 서류도 300여종을 줄여 편리하게 한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도입 된지 20여 년이 흘러도 컴퓨터에 대한 이해는 제자리에서 맴 돌고, 현실적으로 전산으로 처리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움만 더해 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산업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애로사항을 설명해도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초기 전산 업무 담당자들은 모두가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허덕이고만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그 동안에 전산분야도 세분화되어 초창기 친하게 지내던 컴퓨터 요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접촉할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업무분야는 달라도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며 활동하던 친구들 마저 서로 흩어져 만나지 못하니 외로움만 더해갔다. 이때 정보문화가 확산되어 대중화되지

않고는 앞으로의 전산화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빠져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모아 개인보다는 단체를 구성하여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1964년 5월 10일에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 전문가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산업무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첫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석학을 우리나라에 초빙하여 언론의 힘을 빌려 붐을 일으키고,

둘째, 컴퓨터의 자판(키)만 보면 불안을 느끼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체험적으로 정보산업의 편리함과 친근감을 스스로 갖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전산 전문가들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넷째, 다양한 분야로 분파 되어 일체감을 잃어 가는 정보산업분야가 일체감을 갖도록 구심점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 한발 늦은 우리가 200년이 지나가도록 후진국으로 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완료되어 연례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정보혁명에 두지지 않고 우리도 후진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당초 계획대로 단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첫번째, 당초 구상했던 대로 세계적 석학은 “다니엘 벨”과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를 통해 명성이 자자한 미국의 석학 엘빈토플러 박사중 누구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논의하였으나 근래 널리 알려진 엘빈토플러 박사를 초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엘빈토플러 박사는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인사로 심지어 자기의 역작 “제3의 물결”까지 우리나라 교수가 번역하여 해적판을 발행하는 등 지적소유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한국은 싫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엘빈토플러는 한국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이나 심지어 한국에서 오는 저명인사 또는 기자들 마저 만나주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하는 입장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경험도 없이 의욕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정보와 비용이 먼저 필요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 것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물러설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우리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이며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일을 하는 순수한 집단으로 체계적 추세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지적소유권 문제는 무려 40여 차례의 FAX 연락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열화 같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은 초청 비와 강사료 등 경비가 최소한 10만 불은 필요했으나 가당치 않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달러가 부족하여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 7일간에 10만 불이라니 이것은 엘빈토플러가 거액의 초청비용을 핑계삼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문의 해외파견 기자들을 상대로 설득한 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다.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엘빈토플러의 경우 1시간에 2-3만 불을 받으며 우리가 1주일에 10만 불이라면 오히려 획기적으로 적은 액수라는 것이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보화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시는 체신부차관을 만나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차관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다. 전경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자통신연구소, KBS 등 전산분야에 관련이 깊은 기관들과 직접 협조하여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

어 경비문제는 가까스로 해결되었다.

다음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 기관이 필요해서 평소 전 산업무에 관심이 많은 한국경제신문 사장을 찾아뵈었다. 사장은 엘빈토플러로 부터 면담을 거절당하고 칼럼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이사장은 즉석에서 동의하고 먼저 경비도 전액 선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 석학 엘빈토플러 박사의 강연회는 1986년 9월 6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었는데 입장권이 부족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보산업에 남다른 관심의 표시라기보다 유명한 엘빈토플러의 강연이라도 한번 들어보자는 현상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입장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구내방송과 연결하여 전직원이 앉은자리에서 직접 강연내용을 듣도록 연결한바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초청 강연이 무난하게 끝을 맺고 숨을 몰아쉴 여유도 없이 초청비 10만\$이 모 일간신문 까십란에 제기 되었다. 가슴이 덜커덩 무너지도록 겁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 일 뒤 칼루이스가 초청 시범경기로 100m를 10초동안에 뛰어 10만불을 받아 초점이 그곳으로 옮기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

두 번째, 엘빈토플러의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고위직의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되었다고 생각되나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고위직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의 인식이 더 필요했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듬하여 「한국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1987년 6월24일부터 5일간 KOEX 대서양관을 빌려 전시하자고 했다. 사실은 전시회를 주도하는 나도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국소프트웨어 전시회” 공고부터 신문에 게재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관련기관의 고위직 인사나 공무원 심지어 컴퓨터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들도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문의해 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전시회에 직접 오셔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드웨어는 알 것 같으나 소프트웨어는 개념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여 보여 준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 그랬을 것으로 이해는 된다. 당시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만 전산업무도 과거 손으로 하던 일을 일부 계산기나 타자기로 찍어내듯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 부서에서 엘리트로 자부하던 모 구위인사는 내가 소장으로서 있는 전산소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를 보여달라고 하여 현재 전화요금 운영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보여 드리니 이것 말고 동판을 보여달라고 하여 신문발행 인쇄와 같은 것으

로 인식하는 것 같아 혼자서 속으로 웃었던 일도 있었던 형편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전시장에 가 보면 손님을 끌기 위하여 전시장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마이크를 통해 큰소리로 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니 손님은 그곳으로 몰리고 돈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실제 좋은 작품을 전시해 놓고도 아무도 보와 주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전시회는 내용을 정확히 알린다는 뜻에서 전시장 구성도 자금이 풍부한 회사의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똑 같은 크기로 전시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등 일체의 행동마저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문가협회는 직원도 없어서 회장인 내가 혼자서 직접 구상하고 배치도와 그림까지 그리는 등 고생을 많이 한 생각이 새삼스럽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어 구경 차 찾아와 전시회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 전시회는 전산업무를 널리 보급할 발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또 우리협회가 앞으로 자원조달을 위해 계속 유지해 갈 적절한 업무라고 자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세 번째로, 또 우리나라에 전산업무가 도입 된지 20년이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초창기 품었던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토플러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또 전시회를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우리가 스스로 전문가들의 사기를 버릴 수는 없었다. 전문가들이 떠나버리면 꿈도 희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분야 전문가들만과 숨어서 일만 하고 있는 요원들이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공모전」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수상한 작품은 “소프트웨어전시장”안에 특별장소를 마련하여 함께 전시함으로써 공모전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금도 무려 2천만원이나 하는 거액을 걸어 전문가들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돈은 한푼도 없는 우리가 참으로 무모하게 상금을 제시한 것 같지만 쓸어져 가는 컴퓨터 전문가들을 다시 제자리에 서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전산업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뒤에서 말없이 후원해 주신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공사의 간부 및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긍지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네번째,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진 정보산업계 인사들이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정보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구심점은 정보와 관련이 깊은 컴퓨

터가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67년 3월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이라는 기종이 처음 도입되어 준비단계를 거쳐 1967년 6월 24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참석 컴퓨터를 개통시킨 날을 기념하여 "6월24일"을 「정보의 날」로 정하고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촉배를 높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87년 6월 24일 제1회 「정보의 날」은 컴퓨터가 도입된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보 성년의 날」로 정하고 행사에는 정부 고위직 인사와 정보산업계 저명한 인사들이 무려 600여명이나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부담이 없는 이 행사가 연례적인 행사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보문화의 달」이 올해로 제13회인데 비해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정보의 날」은 제14회가 된다.

다섯 번째, 정보처리전문가협회에서는 86년도 엘빈토플러 초청강의, 87년도 「소프트웨어 전시회」 「소프트웨어 공모전」 「정보의 날」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정보산업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다른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테니스대회나 컴퓨터산악회에서 주도하는 정보사업인 등산대회, 그리고 정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인 골프대회 등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모든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

로 함께 행사를 하면 정보산업 종사자의 사기도 진작되고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최소한 정보주간이나 정보월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연례적으로 수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시 체신부(지금은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우리 협회의 성공사례를 보고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당시 정보라는 용어는 정보부와 관련하여 체감상 좋지 않고 특히 일반에게 거부감이 크다고 걱정을 하면서 수일간 논의하였으나 얼마 후 체신부에서 「정보의 달」에 문화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정보문화의 달」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어 가동을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고 온라인과 관계가 깊은 한국통신공사의 전화자동화가 6월 30일 마지막으로 개통되었음으로 이를 기념하여 6월로 하되, 정보를 취급하는 학회 협회 기관들이 많고 또 하는 일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으니 최소한 1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주간이 아니라 6월 한 달을 「정보문화의 달」로 하기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정보의 날」은 부처별로 「각종 날」을 정하여 너무 많다고 여론이 있으니 절차상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고유업무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보문화의 달」이 제13회인데 「정보의 날」은 14회로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

문화의 달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문화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이를 집행할 재단법인 한국정보문화센타를 설치하고, 전산업무를 체계있게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산원, 그리고 전산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주) 등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서 정보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우리의 뜻이 꼭 이루어져 마지막 사회발전 1, 2차 혁명 후에 오는 3차 정보혁명은 반듯이 우리가 주도하여 일류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뜻 간절하다. 필자는 지금도 협회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